



김정향 개인전
<Spiritoso>

2011 김정향 개인전 < Spiritoso >

■ 전시 개요

1. 전시 제목: 김정향 개인전 Spiritoso
2. 전시 기간: 2011년 9월 20일 (화) – 10월 30일 (일) (42일간)
3. 전시 장소: 갤러리 비케이 Gallery BK (140-887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155)
4. 관람 안내: 화요일-일요일 10:00am -6:00pm / 매주 월요일 휴관 / 무료관람
5. 오프닝 리셉션: 2011년 9월 20일 (화) 6:00pm

2011 김정향 개인전 < Spiritoso >

자연과 소통하는 작가로 잘 알려진 김정향이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Gallery BK에서 개인전을 가진다. 지난 2008년 이후 약 3년 만에 한국에서 갖는 개인전이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작업은 기하학적 형상과 우연적인 효과의 반복 그리고 자연색의 표현들이 한데 어우러져 자신의 기억을 자연에 투영시켜, 자신만의 자연 세계를 만들어 내며, 뉴욕 타임즈에서도 크게 호평을 받았다.

'자연과 교감한다.'

자연의 작가로 잘 알려진 그녀의 오랜 작품의 주제는 자연이다. 맑은 하늘, 살랑이는 바람, 햇빛에 빛나는 물방울 등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작품 소재가 된다. 작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에 스쳐 지나간 자연의 풍경에서 보고, 느끼지 못한 다양한 느낌들을 찾아낸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고 느꼈던 자연의 대상의 작가의 추상적 언어로 전환시키며, 다양한 이야기들의 펼치는 것이다.

자연의 절대적임 '미'를 담고 있는 그의 작품은 단지 밝고 아름다운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람, 비, 자연의 모든 것에 숨겨져 있는 그녀만의 미적 철학은 관조이다. 응시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의 풍경과 정신적 세계와의 연결하고,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시킨다.

김정향의 추상화들은 정성과 소중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분명하다. 대단한 창의성과 함께 세부적인 것에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신경 쓴 이 작품들은 매력적이고 때때로 장식적인 방향으로 광장히 시각적이면서도 다양한 이야기와 시적인 감동,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다.

- 뉴욕타임즈, 벤자민 그노키오

2011 김정향 개인전 < Spiritoso >

'상상과 현실의 세계에 놓인 작품'

김정향의 작업 활동의 범위는 폭넓다. 지난 2006년 브루클린의 크레센트 스트리트 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맡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 개인전에 앞서 사천에 위치한 LIG 연수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사천 LIG 연수원의 진입터널과 입구 전체로 각각 40m가 넘는 길이에 설치된 작업은 예술과 자연의 조화라는 주제 아래 이루어졌다. 4만 평이라는 탁 트인 공간에 건립된 LIG 연수원의 성격에 맞게 자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장인들을 모았다. 10여개월에 걸쳐 완성된 대작은 모자이크와 유리예술이라는 새로운 테크닉을 통해 힘차고 생동력 있는 작품을 보여주며, 작품의 방대한 스케일과 과감히 사용한 새로운 테크닉의 활용과 창의력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명작으로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 탁 트인 자연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자연과 함께'라는 그녀의 작품은 '시적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감을 정의하며 자연의 완전한 순수 자아를 꿈꾸며, 한결같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캔버스 안에 가득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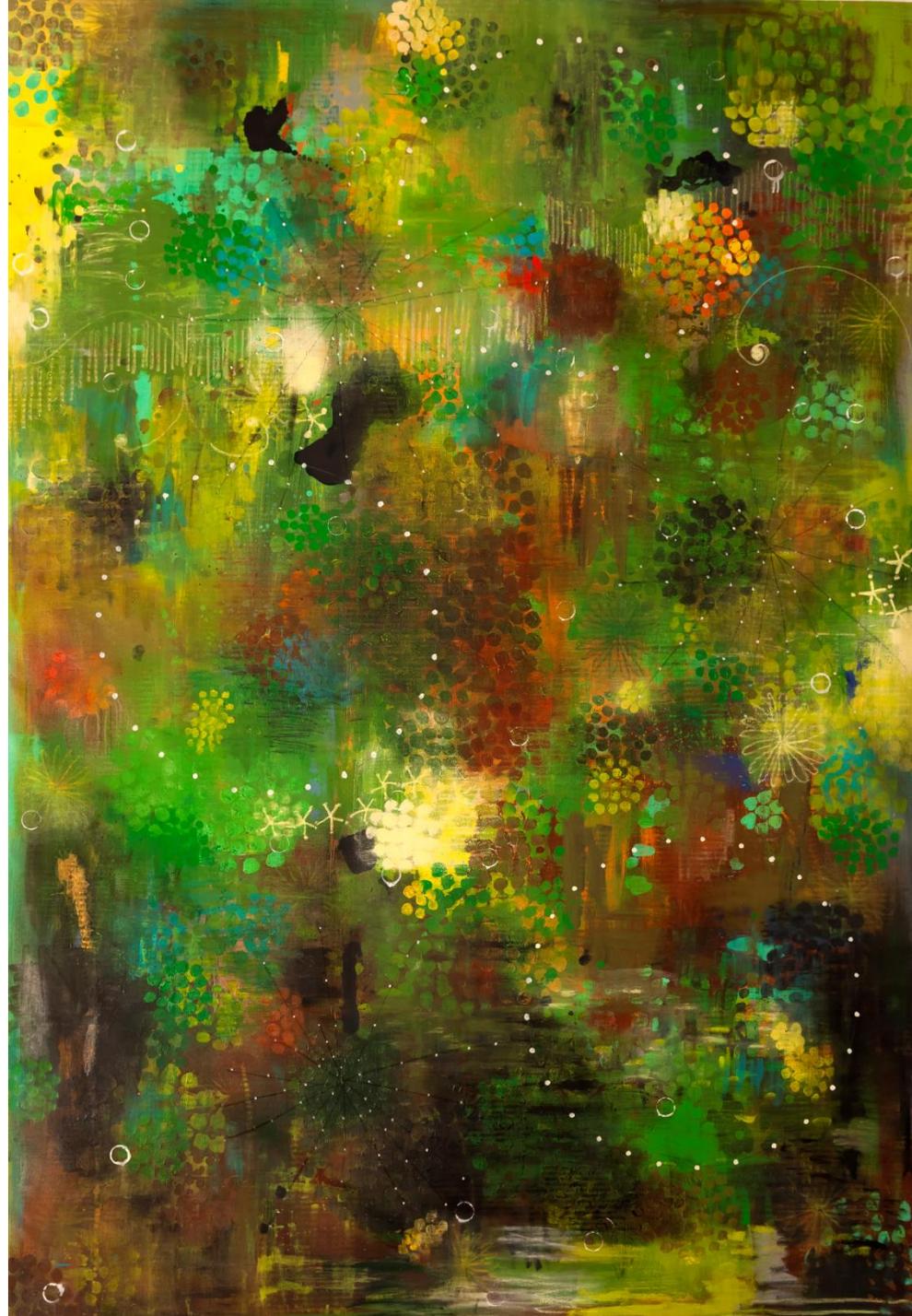
2011 김정향 개인전 < Spiritoso >

‘화이트 큐브 속에 놓인 자연 Spirito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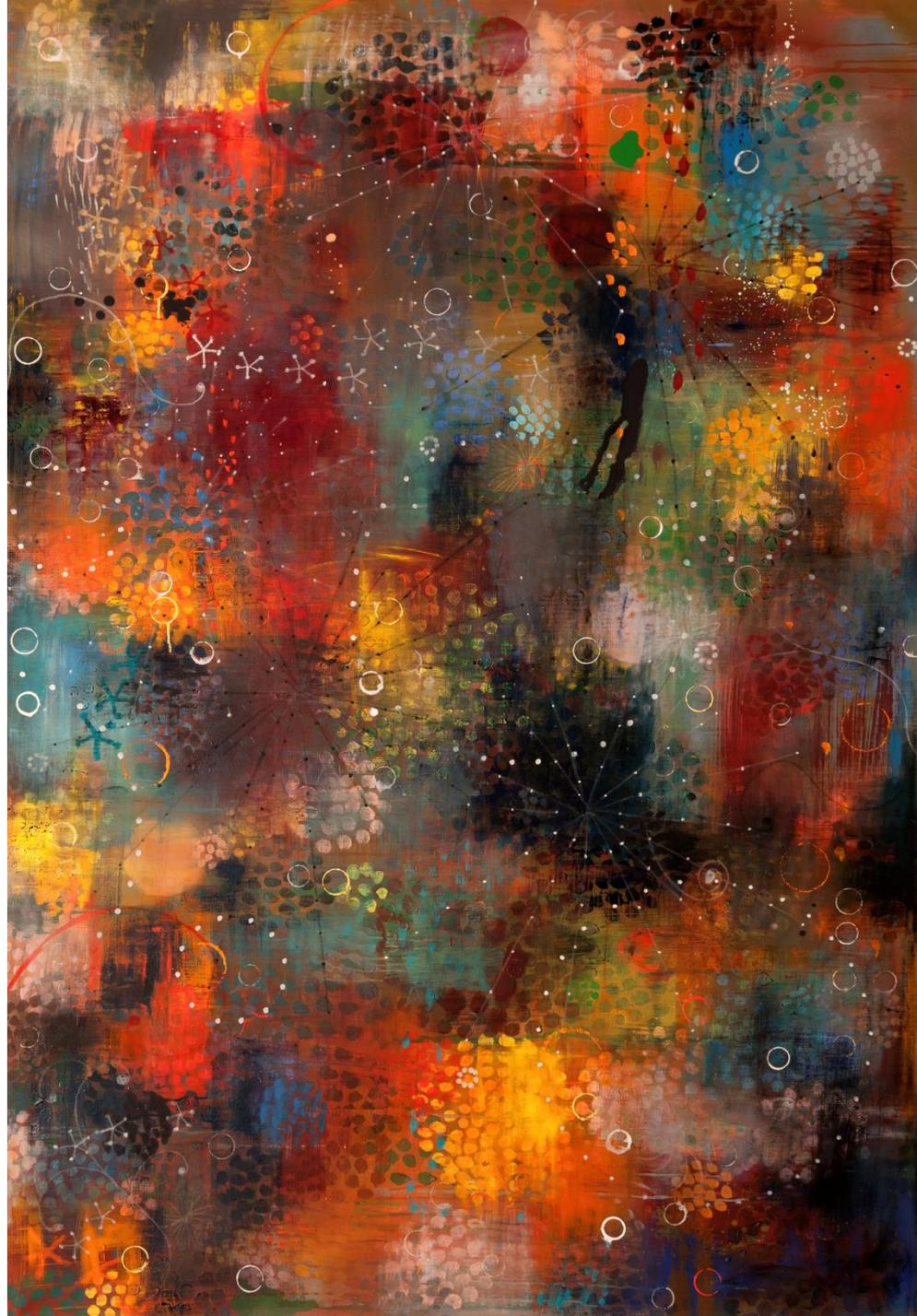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신작은 <Spiritoso>라는 전시명처럼 기운찬 활발한 자연의 모습을 담았다. 푸른 남빛, 연두색 바람, 자주 빛 방울 등 작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작품은 자연의 추상적인 형태와 더불어 자연색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작가는 전통적인 추상회화법과 경험을 통해 느낀 자연의 감각을 점, 선 그리고 동그라미(원)의 형상들을 사용하여 자연의 다채로운 형상들을 표현해 낸다. 작가의 자연에 대한 느낌과 상상력의 결합은 자연의 소소한 변화들을 확장시켜 나가며 캔버스 위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섬세하고 미세한 터치를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나간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시적공간을 형성하고 싶었다고 이야기 한다. 밝고 따뜻한 때론 어둡고 우울한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은 시각적이자, 감각적, 정신적의 자연의 활동이며, 작품을 통해 자연적인 것의 절대적인 필연성인 ‘정신’이 예술작품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적 조화의 표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작가의 경험한 감정을 마주보게 되며, 새로운 경험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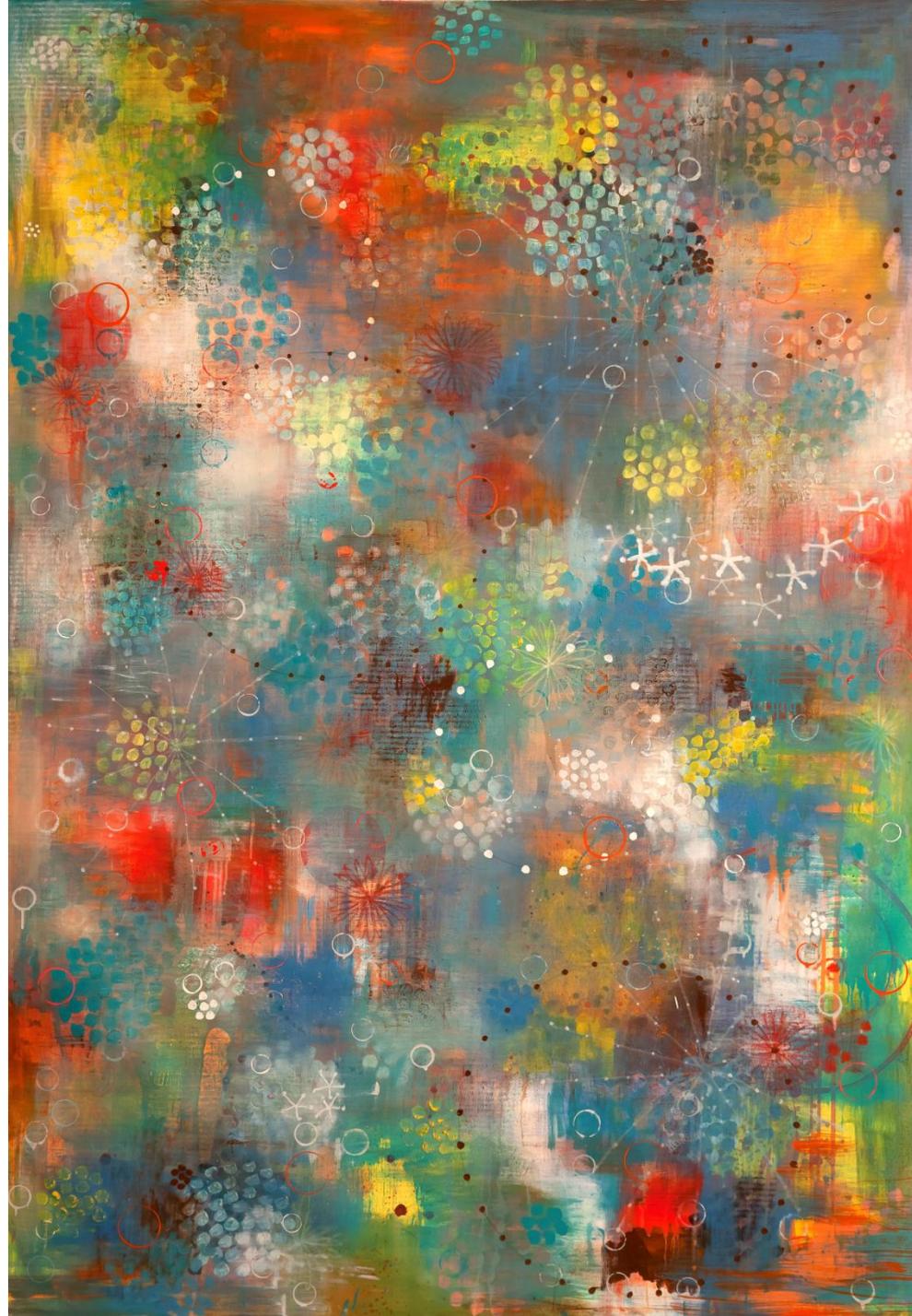
Green Air(연두색 바람)
oil on canvas, 190x131cm
2010-2011



September Evening(9월의 밤)
oil on canvas, 190x131cm
2010-2011



Sparkly(반짝임)
oil on canvas, 190x131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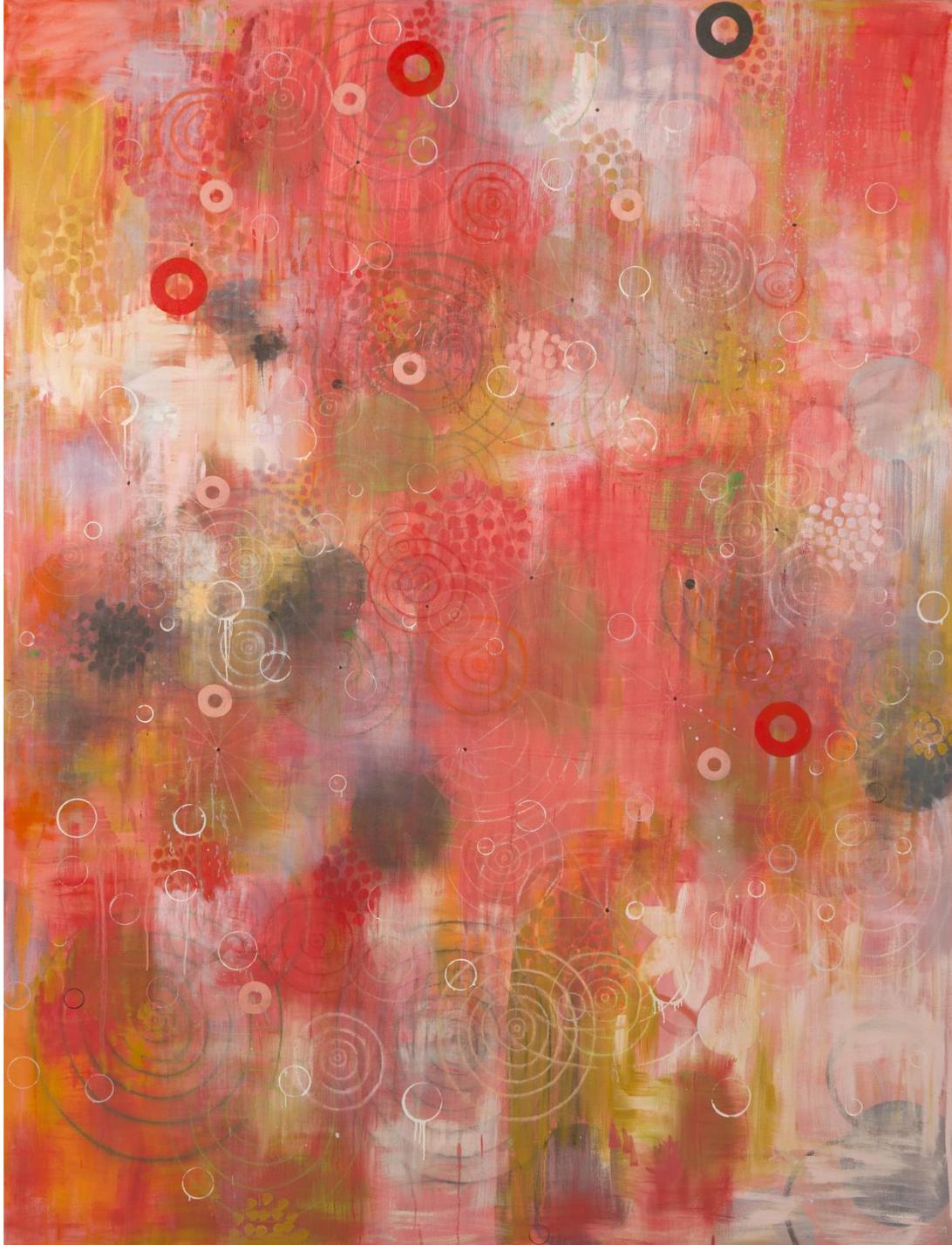
Spiritoso 04 달콤한 행복
oil on canvas, 244x 182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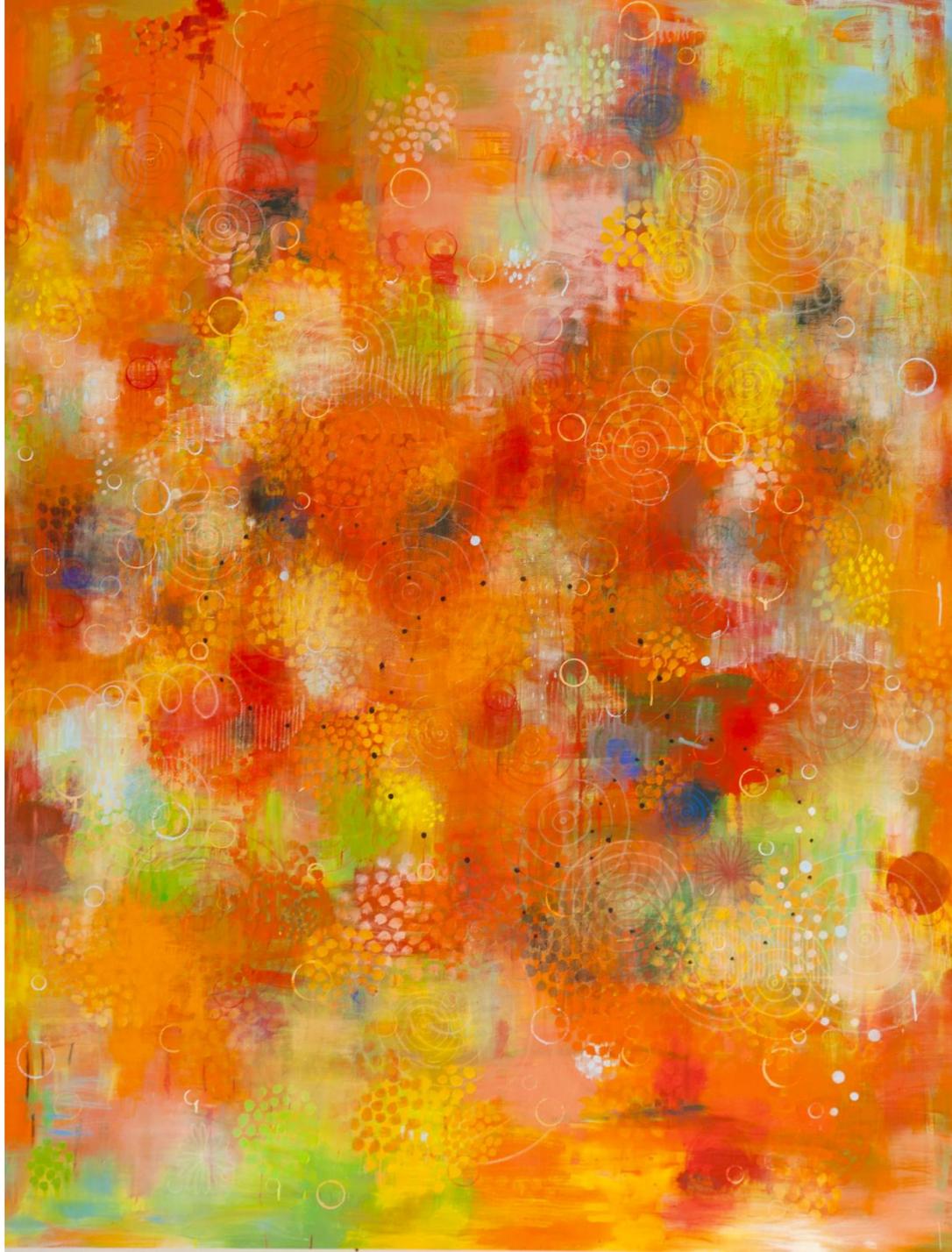
Spiritoso 10 열려진 길
oil on canvas, 244x182cm
200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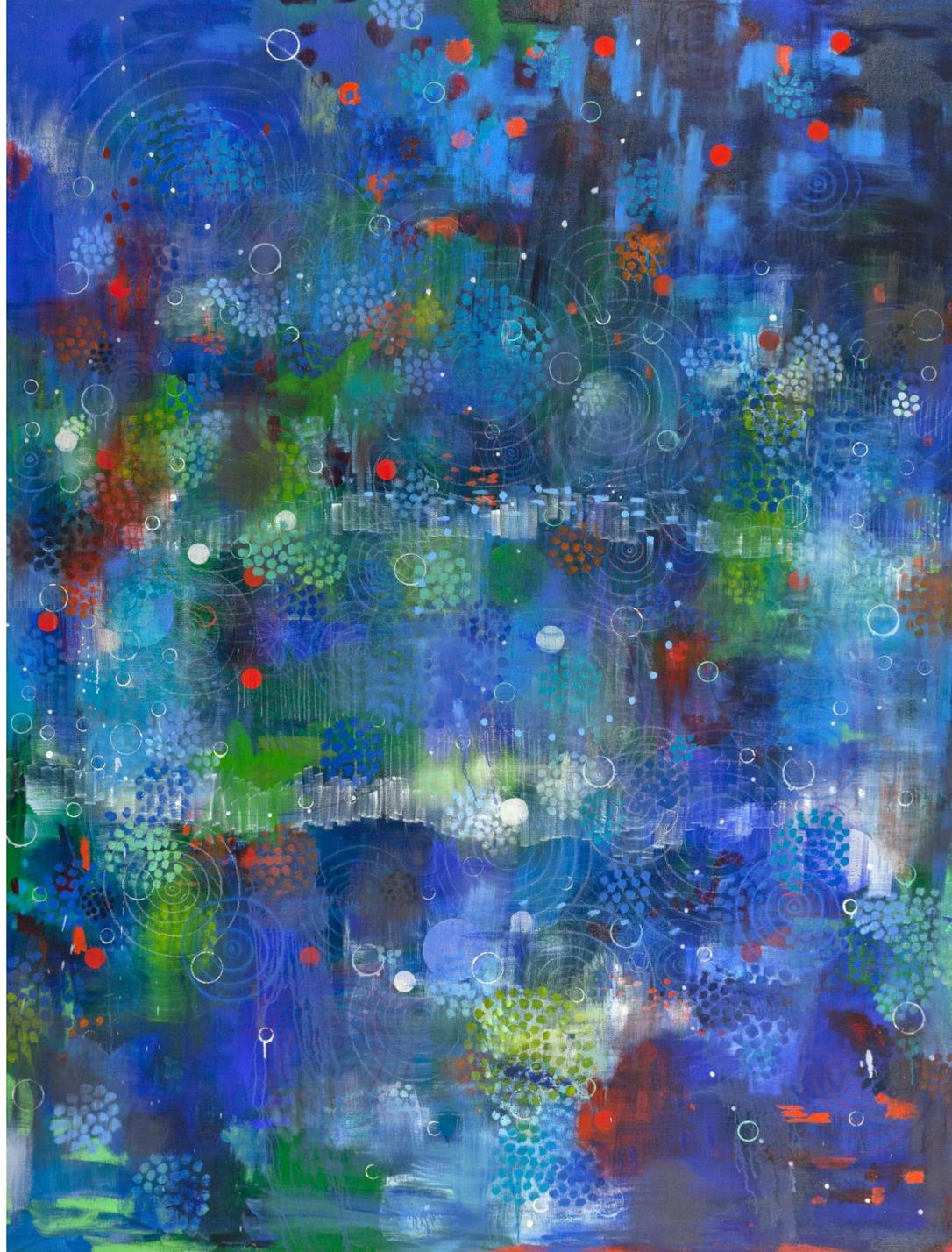
Spiritoso 05 진달래
oil on canvas, 244x182cm,
2011



Spiritoso 07 춤추는 석양
oil on canvas, 244x182cm
2011



Spiritoso 06 잔물결
oil on canvas, 244x182cm
2011





An Azure(푸른 남빛), oil on canvas, 152x213cm, 2010-2011



Crimson Bubbles(자주빛 방울), oil on canvas, 152x213cm, 2011



Lovers's song(연인들의 노래), oil on canvas, 152x213cm, 2010-2011



Spiritoso 09 향기로운 숲, oil on canvas, 94x124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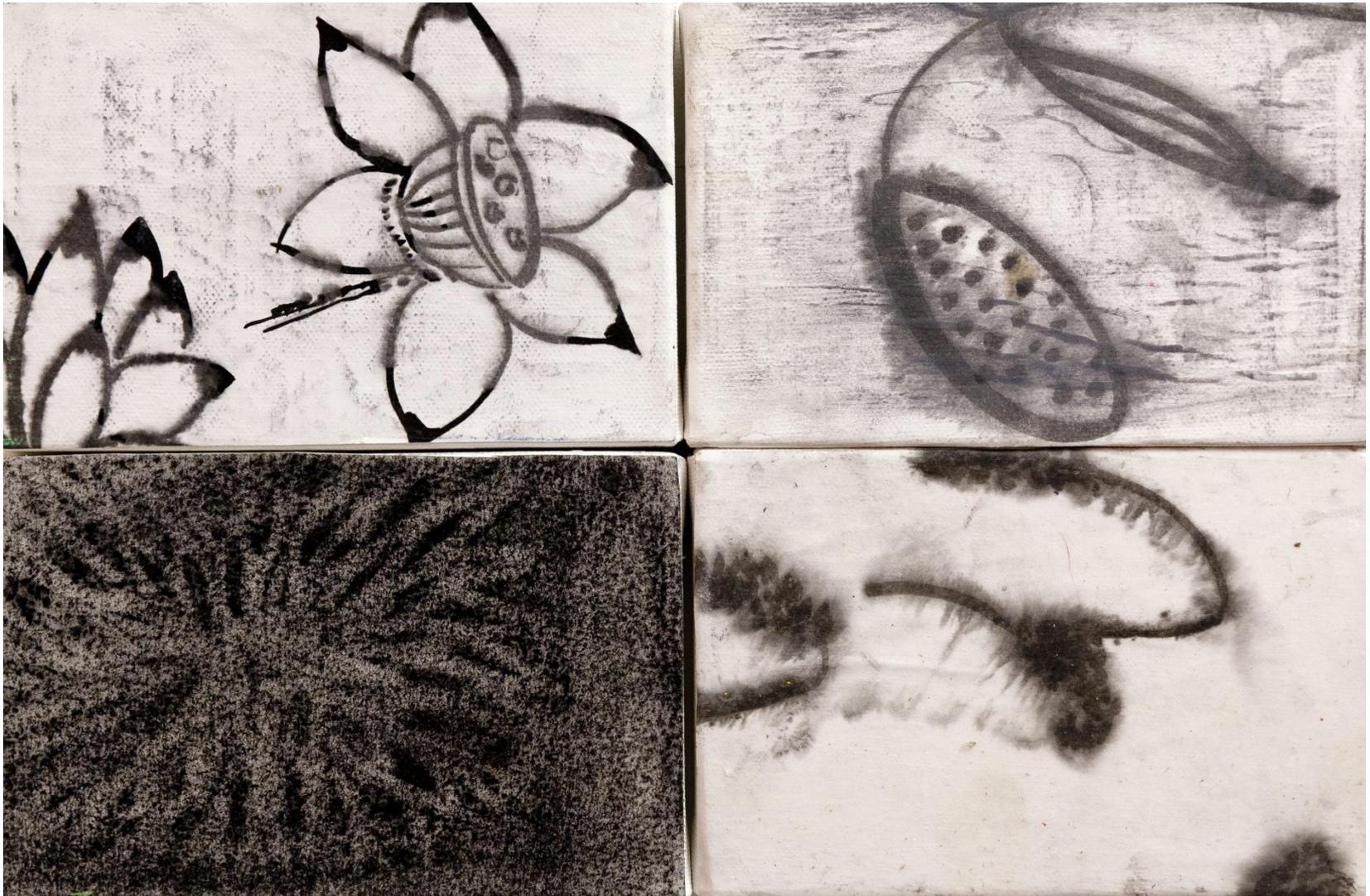
Spiritoso 08 순수한 초록, oil on canvas, 116.5x132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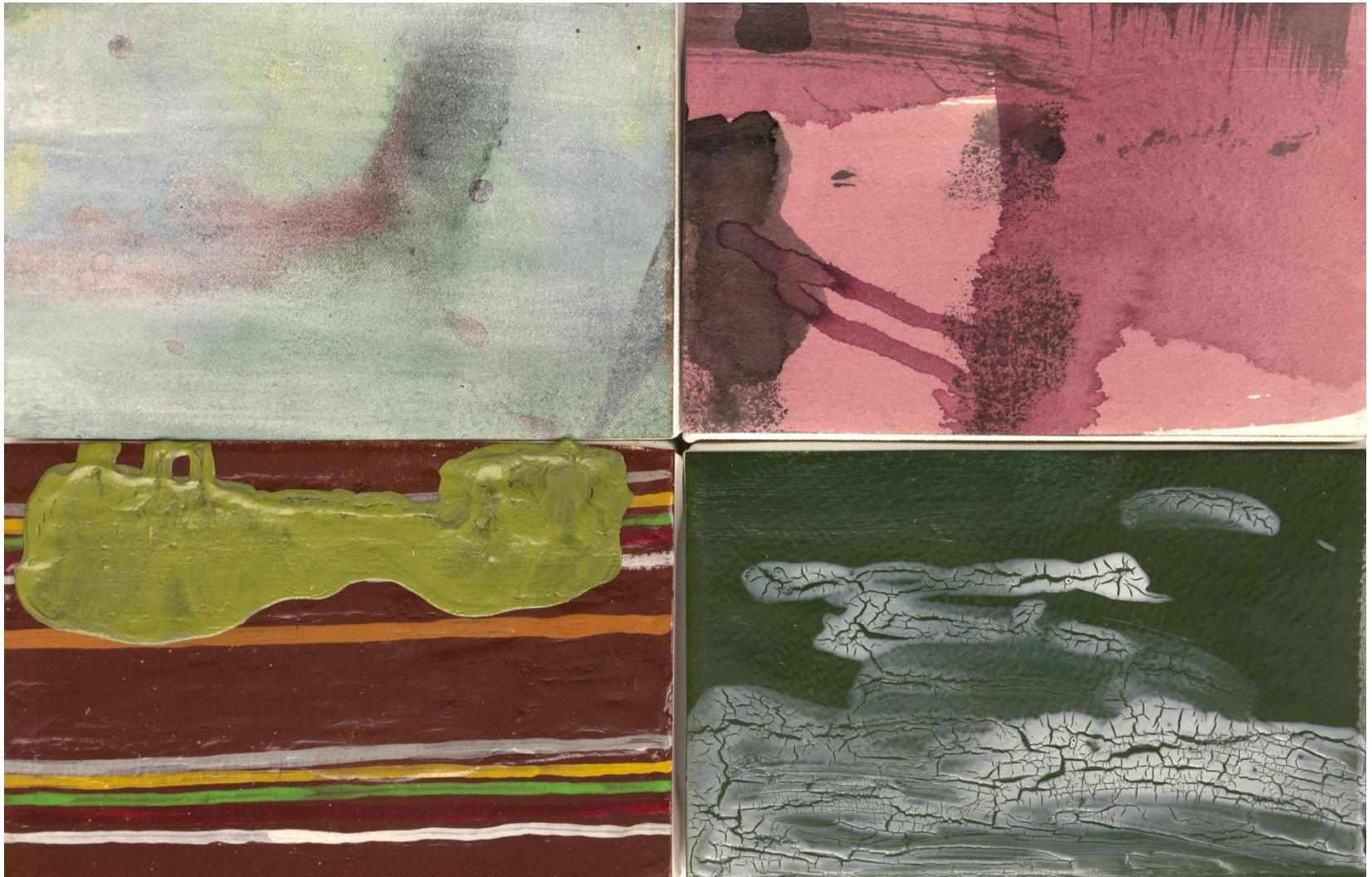
Stirring(사랑거림), oil on canvas, 152x213cm, 2011

Abacada
oil on panels, 137x 91cm
2008-2011 (24 pan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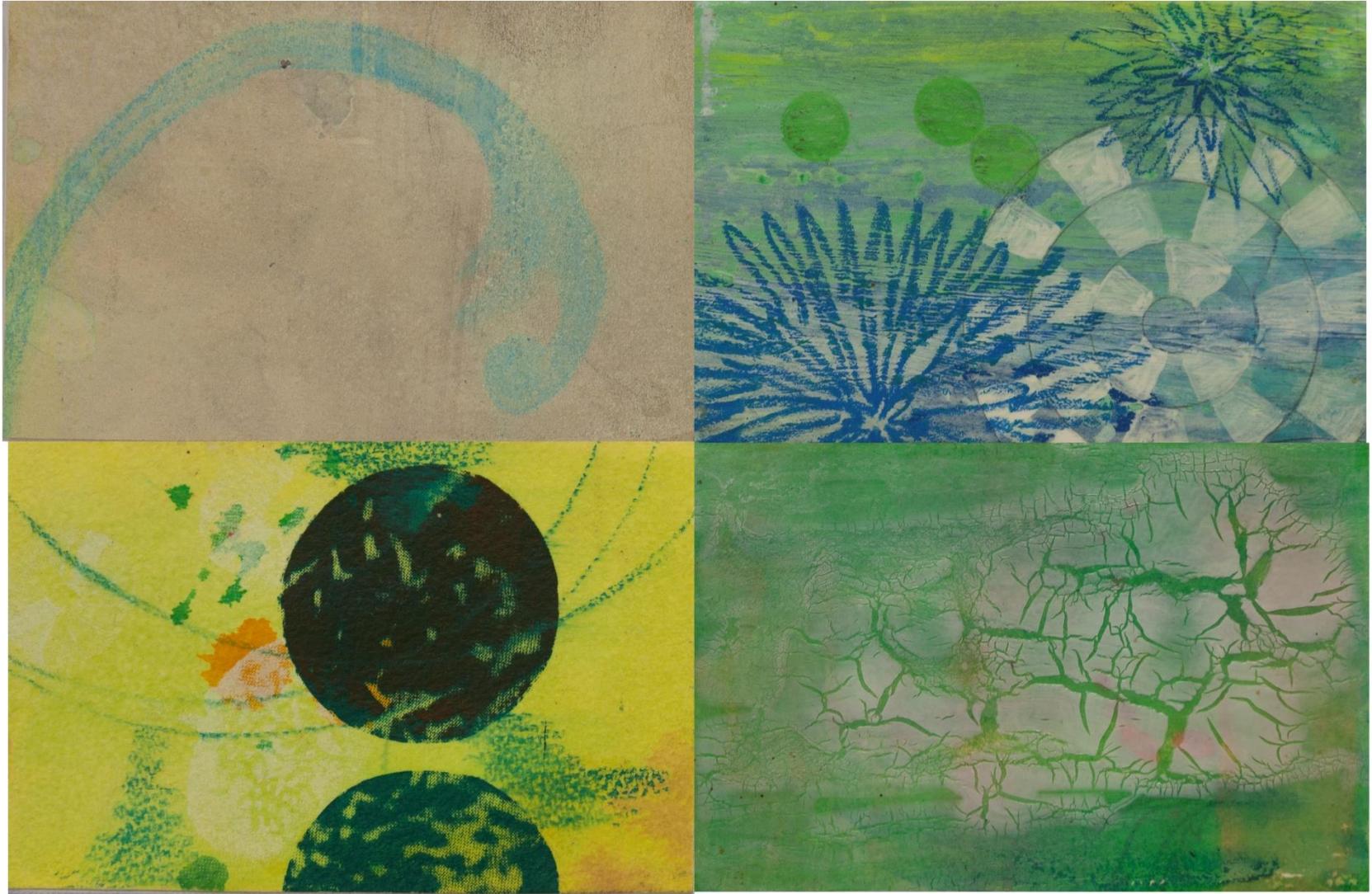




Abacada, mixed medium on canvas, 20x30cm 2009-2011(4panels)



Abacada, mixed medium on canvas, 20x30cm 2009-2011(4panels)



Abacada, mixed medium on canvas, 20x30cm 2009-2011(4panels)

Artist history <2009. 09. 27 뉴욕 타임즈에 실린 평론>

THE NEW YORK TIMES, SUNDAY, SEPTEMBER 27, 2009

ARTS | LONG ISLAND

The Commonplace And the Spiritual

Paintings That See Nature
Filtered Through Memory



ABSTRACTIONS
"Unfurled Red #2," near right, and "Shadows and Butterflies #6," by Jung Hyang Kim at Anthony Giordano Gallery.

Jung Hyang Kim's abstract paintings on canvas and paper at the Anthony Giordano Gallery at Dowling College

are obviously labors of love. Displaying great creativity and attention to detail, they are richly visual, combining narrative, poetry and beauty in ways that are charming and sometimes decorative.

Juxtaposition is a central theme here; much of the success of the dozen paintings in this show is owed to their marriage of the commonplace with the spir-

"Jung Hyang Kim: In Flux, in Bloom," Anthony Giordano Gallery at Dowling College, Idle Hour Boulevard, Oakdale, through Oct. 18; dowling.edu or (631) 244-3016.

itual. The works combine foggy and broadly brushed mists of color with schematic depictions of flowers, geometric shapes and other simple, recognizable forms. The overall impression is of vague memories or a dream.

Elements of nature are the starting point for these pictures, filtered through memories and sensations of particular moments — the splash of a raindrop, reflections in a pond, light piercing morning fog. One could say that the artist is an impressionist working with the language of abstraction.

Certain decorative patterns recur: snowflakes, circles within circles, flowers, and a design that resembles a string of pearls. The patterns delicately merge, adding another layer of mystery. Standing in front of these paintings is like journeying into a world in which re-



PHOTOGRAPHS BY KEN SHUNG

ality blurs seamlessly with the imagination.

These pictures have an affinity to ideas of landscape in traditional Asian art, but this is probably more accidental than intentional. I am thinking in particular of the landscape paintings produced in China during the Yuan Dynasty, in which artists went beyond representation to evoke feelings and sensa-

tions inspired by experiences of nature.

Ms. Kim, 54, was born and raised in Korea, though she has lived in New York for decades. Her works, then, might just as easily be compared with Asian art as with the post-painterly abstraction of the American artist Joan Mitchell, who similarly applied color in brushy swathes that filled the entire canvas.

But Ms. Kim's paintings differ from the work of Ms. Mitchell insofar as the decorative details embellishing her background fields of color promise access to the inner landscape of the artist's heart and mind. She also prefers nature-based color rather than vibrant and expressive hues.

The scale of Ms. Kim's paintings varies considerably, ranging from large, expressive and powerful works such as "Shadows and Butterflies #6" (2008), probably the best individual work in the show, to more modest and intimate pictures, including "Night Bloom" (2008), "Unfurled Red #2" (2008) and "Winter Bloom #3" (2009). She also employs a wide range of media.

I prefer the larger pictures, especially

Displaying an affinity
with landscapes in
traditional Asian art.

the oil paintings on canvas, like "Shadows and Butterflies #6" (2008) and "White Flutter" (2009), which conjures a winter snowstorm. When examined at close range, they often seem to envelop the viewer in a luxuriant environment of color, detail and mist.

Chance is also an element here, for many of these pictures reveal traces of erasure marks or charcoal smudging that occurred during the artistic process. For Ms. Kim, a finished work of art is one that "sustains imperfection," as she writes in the show's catalog, "recreating in an essence the fragile and ephemeral world we are in." Her works are a metaphor for existence.

There is one small concern I have with these gentle paintings. The artist's preference for thinly painted background surfaces sometimes makes her pictures seem flat and lacking complexity. Greater attention to the layering of paint might make the surfaces seem more permeable, adding depth. But this is a minor quibble with what is a quiet, unassuming, yet ultimately beautiful and invigorating show.

Artist history <2009. 09. 27 뉴욕 타임즈에 실린 평론>

2009. 09. 27 뉴욕 타임즈

“일반성에서 정신세계로”

-기억을 통해 여과된 자연을 보는 그림

글. 벤자빈 그노키오

뉴욕 롱 아일랜드 소재 다울링 대학의 안토니오 죠르다노 화랑에서 현재 전시되고 있는 김정향의 추상화들은 정성과 소중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작품은 독창적인 창의성과 함께 세부적인 것에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작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은 더욱더 매력적이고, 때때로 장식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시각적이면서도 이야깃거리와 시적 감동,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다.

작품의 주요 주제는 양면성을 병치 시키는 것이다.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의 성공 비결은 일반성과 정신적 세계를 다층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꽃과 기하학적 형상,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다른 단순한 형태들을 안개처럼 희미하면서 대략적인 붓질을 통해 번지는 듯한 색의 향연으로 도식적인 묘사를 한다. 이러한 김정향의 작업들은 어렵풋하게 기억되는 추억이나 꿈을 연상시킨다.

떨어져 튀어 오르는 빗방울, 연못에 비치는 상, 아침 안개 사이로 비치는 빛과 같이 특정한 순간들의 기억과 감각 속에서 여과된 자연의 요소들이 바로 작품들의 출발점이다. 한마디로 김정향의 작품을 표현하자면 추상적 언어로 표현한 인상파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Artist history <2009. 09. 27 뉴욕 타임즈에 실린 평론>

눈송이, 원(圓) 안의 원, 꽃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연상시키는 구성들은 디자인과 같은 특정한 장식적 패턴으로 반복된다. 이 패턴들은 우아하게 나타나 또 다른 신비의 막을 더한다. 김정향의 작품 앞에 서 있으면 마치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김정향의 그림들은 고전적인 동양화에 나오는 풍경과 관련성을 보이지만 이는 의도되었다기 보다는 우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녀의 작품을 보면 중국 원나라 시대의 산수화가 연상되는데, 중국 원나라의 작가들은 자연에서 느낀 경험을 통해 얻는 감각과 감성을 재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올해 54세인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현재 뉴욕에서 30여 년을 살고 있다. 김정향의 작품들은 원나라 산수화에 비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전체 캔버스를 붓질로 가득 채우는 미국의 추상화가 조안 미첼과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아름답게 채워지는 배경의 색이 꾸미는 장식적 세부 묘사가 작가의 감정과 마음의 내적 풍경에 접근할 수 있게 약속한다는 면에서 조안 미첼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강렬하고 표현적인 색채보다는 자연에 기초를 둔 색을 선호하는 것이 그녀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림자와 나비 #6(2008년 작)'와 같은 200호의 대작이자 격동적이고 표현이 넘치는 (아마 이 전시에서 가장 좋은 작품으로 꼽힐 만하다.) 작품부터 '밤에 핀 꽃(2008년 작)', '빨간 전개(2008년 작)', 그리고 '겨울에 핀 꽃(2009년 작)'과 같이 섬세하면서 친밀감을 이끌어내는 작품까지 다양하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사용한 작품들도 볼 수 있다

Artist history <2009. 09. 27 뉴욕 타임즈에 실린 평론>

특히 유화로 작업한 '그림자와 나비 #6(2008년 작)'과 겨울 폭풍을 연상 시키는 '하얀 파동(2009년 작)'과 같은 대작을 좋아한다. 이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마치 찬란한 색상과 미세한 안개 속으로 흐트러진 세상에 휩싸이는 듯한 느낌에 빠져들게 된다.

우연 역시 김정향이 즐겨 쓰는 주제들 중 하나이다. 작품들을 들여다 보면 지우개를 지운 흔적, 목탄이 뭉그러진 자국과 같은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연한 표현들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불완전의 요소를 유지" 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연약하고 덧없는 세상의 정수를 그림 속에 재현 하려는 것"이라고 그녀의 작업노트에 제시하고 있다.

이 부드러운 그림들에 대한 작게 우려되는 한가지가 있다. 얇은 표면을 즐겨 쓰는 작가의 작품들이 때때로 무난하고 복잡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덧칠을 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반복한다면 더 깊이 있는 표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사로운 흠일 뿐 김정향이 보여준 작품들은 다소곳하면서도 조용한 세계를 보는 이들에게 선사하는 상쾌하고 기운 나게 하는 전시임에는 틀림없다.

전시는 10월 18일까지 The Anthony Giordano Gallery/150 Idle Hour Blvd Oakdale, NY 11769에서 열린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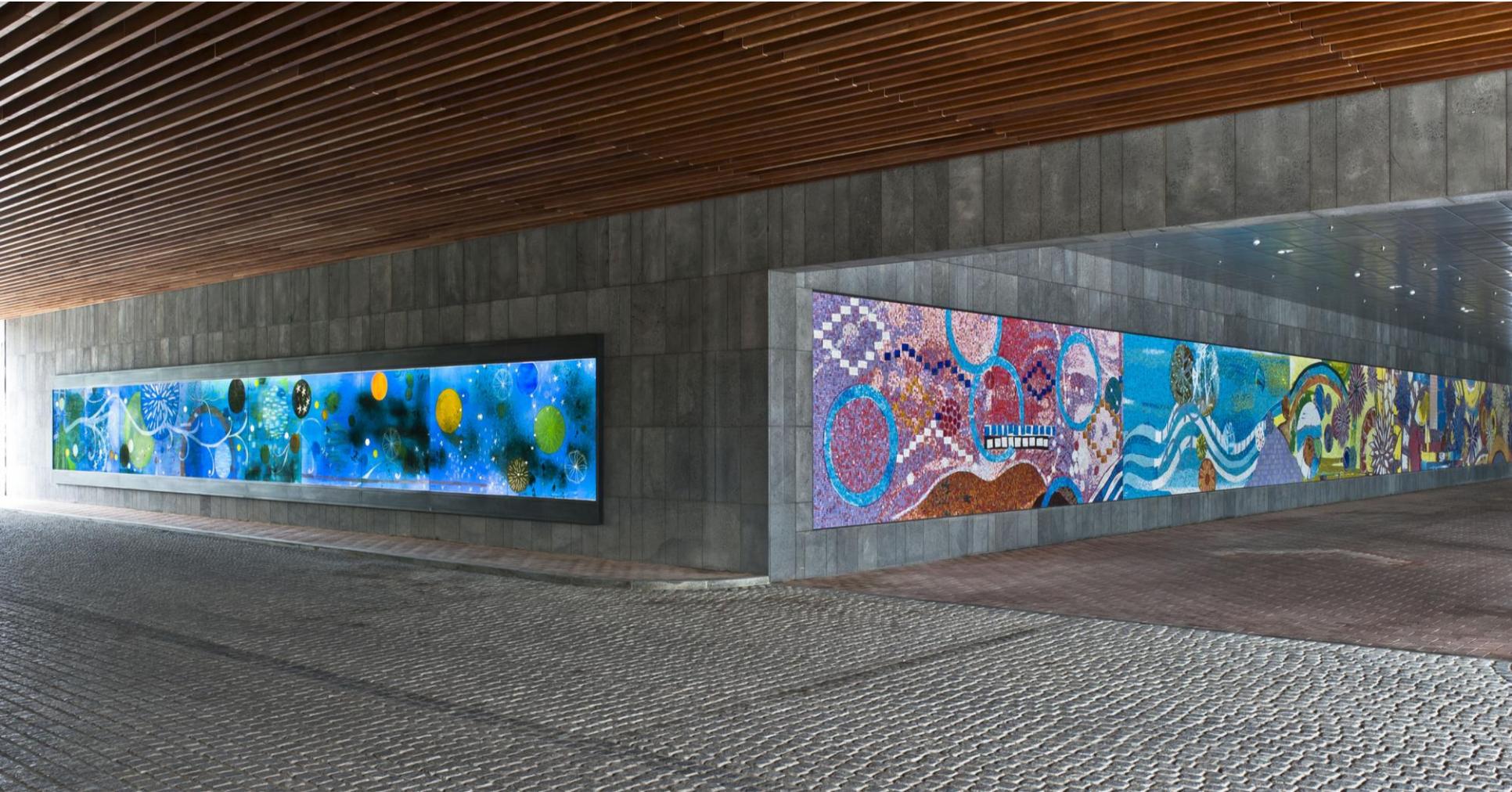
-사천 LIG 연수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달우 김정향**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자연의 색과 빛을 담은 작가로 이미 뉴욕 브루클린 크레센트 지하철역에 스테인글라스의 공공미술 작품으로 화제가 되었던 그녀의 작품을 한국에서도 만날 수 기회가 생겼다.

그녀의 작품이 설치되는 곳은 **사천 LIG 연수원**의 진입터널과 입구 전체로 **각각 40m가 넘는 길이**의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예술과 자연의 조화라는 주제 아래 이루어지는 그녀의 작업은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4만평이라는 탁 트인 공간에 건립된 LIG 연수원의 성격에 맞게 자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장인들을 모았다. 작품은 10여개월에 걸쳐 완성된 대작으로 힘차고 생동력이 넘친다. 그리고 방대한 스케일, 과감히 사용한 새로운 테크닉의 활용과 창의력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명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활짝 핀 채로 영원속으로

About 활짝 핀 채로

높이 2.8 x 길이 47m 대형 모자이크 <활짝 핀 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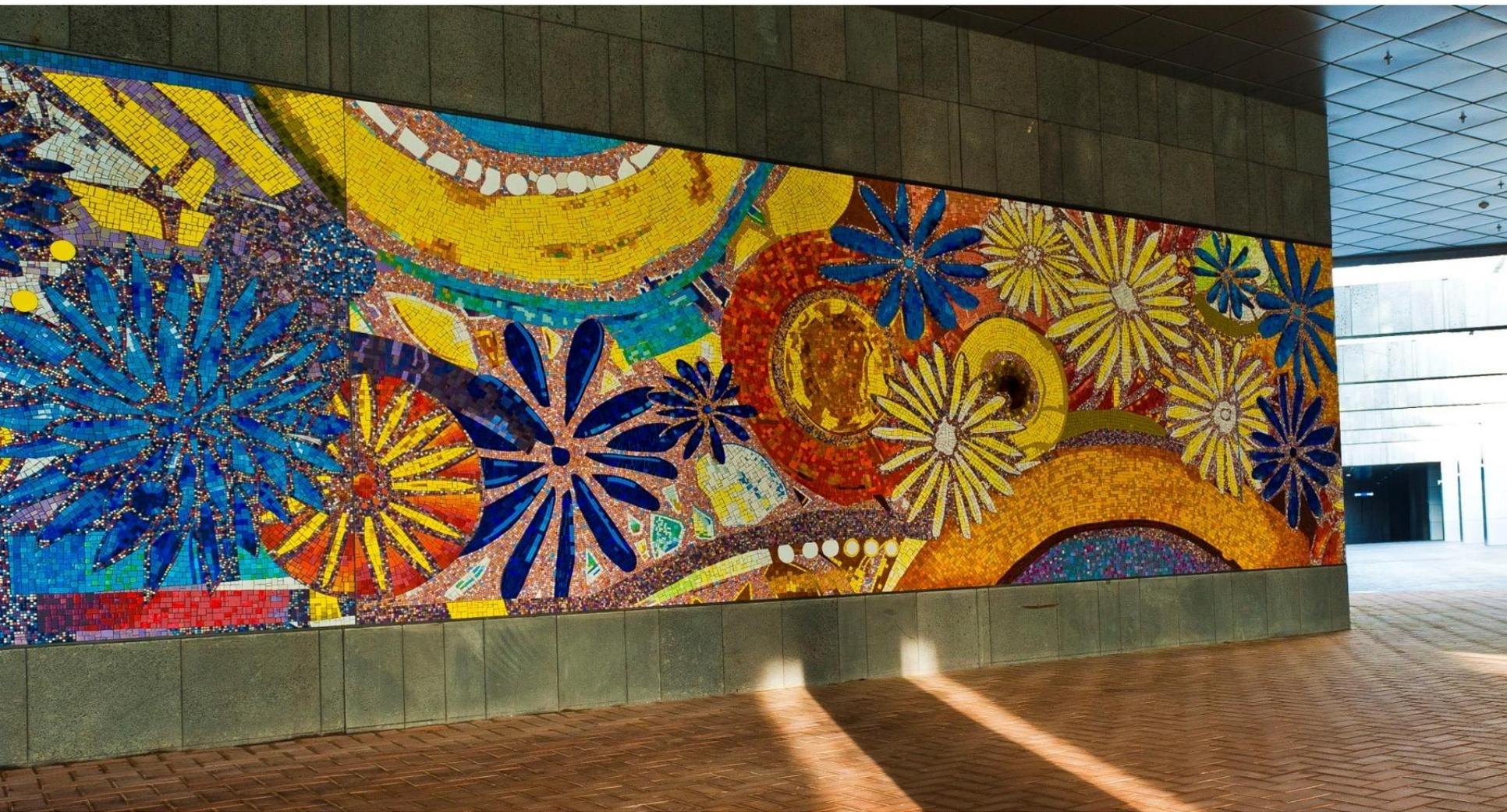
LIG 연수원 입구에 설치된 높이 2.8m x 길이 47m 대형 모자이크 “활짝 핀 채로”는 이탈리아 베니스 북쪽에 있는 **트라 비사누또 모자이크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새로운 제작 스타일을 모자이크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이탈리아에 가서 무라노 유리, 광택, 무광택, 투명, 불투명 타일 등 다양한 타일들을 골랐다. 타일의 재질감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큰 돌의 타일은 5x3cm 크기로, 작은 돌의 타일은 0.8x0.8cm로 조각을 내었다. 특히 이 작품은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이탈리아 모자이크 장인들이 한돌 한돌 거꾸로 붙인 후 뒤집어 만든 것으로 이태리 정통적 모자이크 방식에 현대적 감각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유리 모자이크를 불균형의 사이즈로 깨어서 다시 조립한 것이다.

“활짝 핀 채로”는 크게 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판넬 1번은 땅속의 미지의 세계, 판넬 2번은 바다 속의 미지의 세계, 판넬 3번은 미지의 세계에서 도약을 구원하는 세계, 판넬 4,5,6번은 잠재성이 활짝 핀 채로 펼쳐지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활짝 핀 채로 영원성을 갈구하는 “환상적 세계”를 의미하다. 특히 판넬 6번의 “티타늄 골드”는 “그림 속에 비춰진 나”가 환상적 세계 속에 들어간다.

이대로 활짝 핀채로 영원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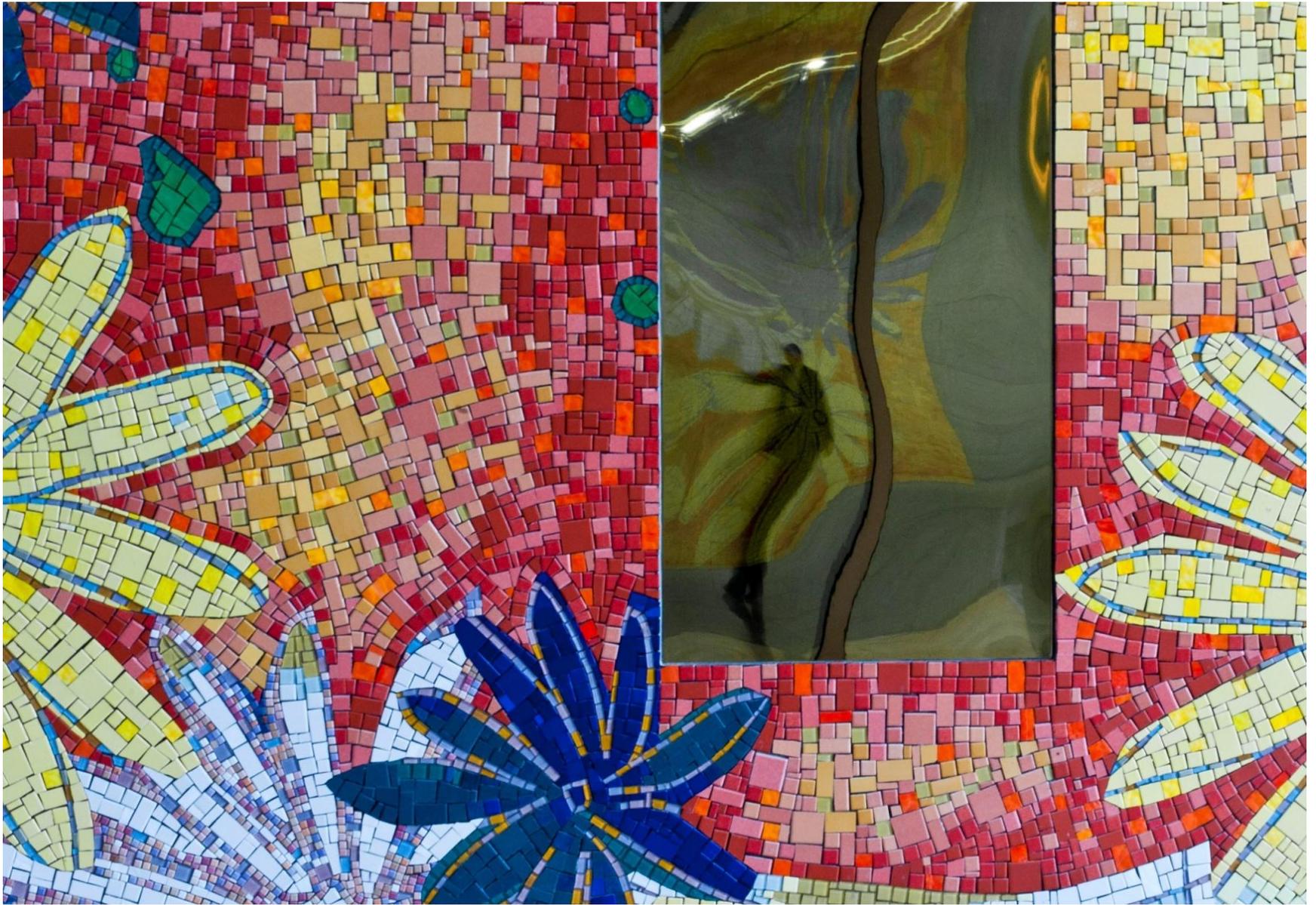


활짝 핀 채로



활짝 핀 채로

GALLERY bk



활짝 핀 채로



활짝 핀 채로



활짝 핀 채로



활짝 핀 채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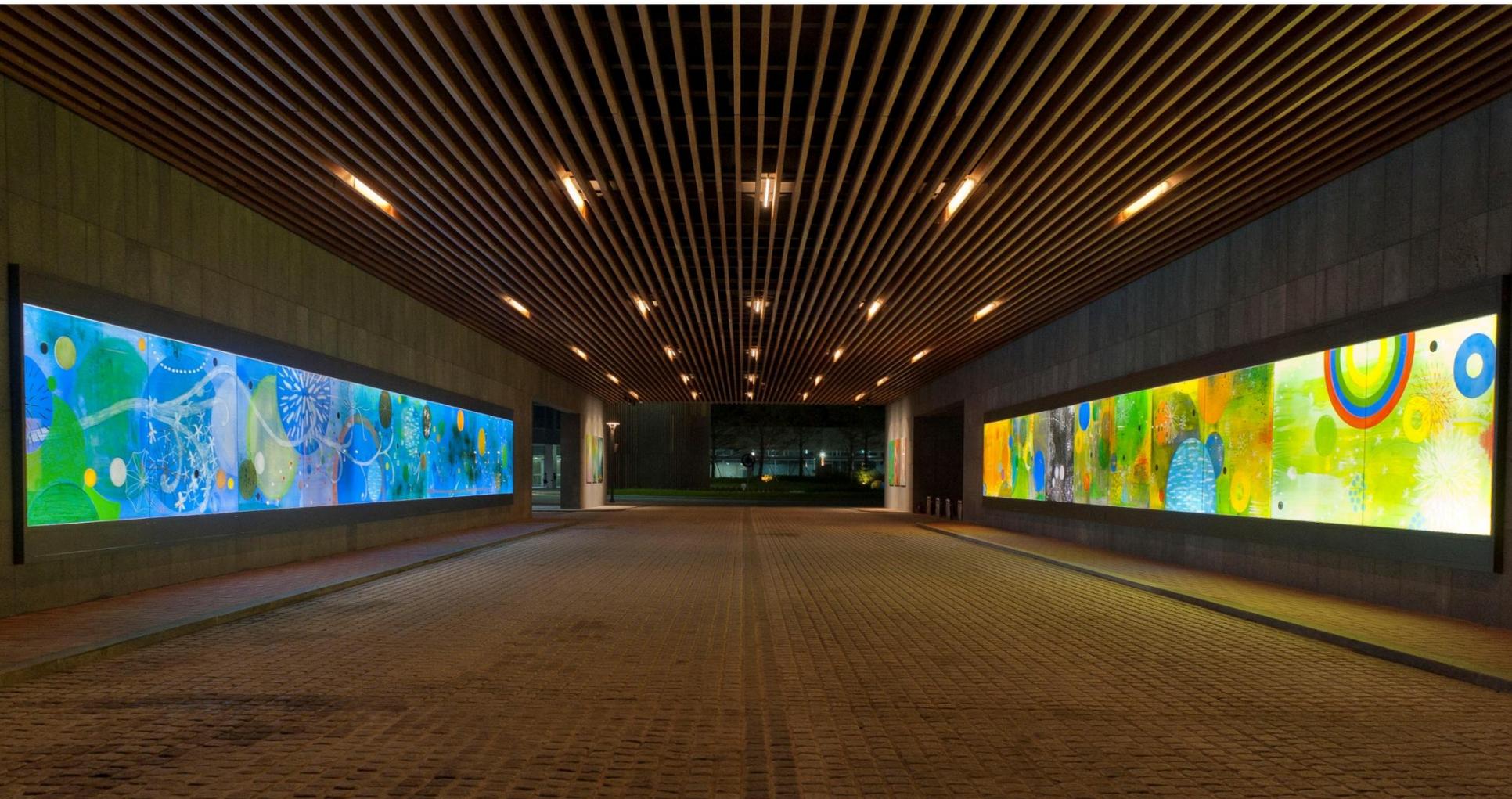
About 희망 꽃 피움

특수 유리 예술 <희망 꽃 피움>

사천의 또 다른 터널입구에 설치된 “희망 꽃 피움”은 유리로 제작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으로, 유리예술 제작으로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독일의 피터스 스튜디오가 제작**하였다. 작품은 1.8m의 정사각형 특수유리 위에 그림을 그린 후 구워내 색을 고착하는 방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색의 손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였으며, 다양하고 색다른 테크닉을 쓰기 위해 몇 달에 걸쳐 샘플을 만들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또한 조명과 액자는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독일팀이 함께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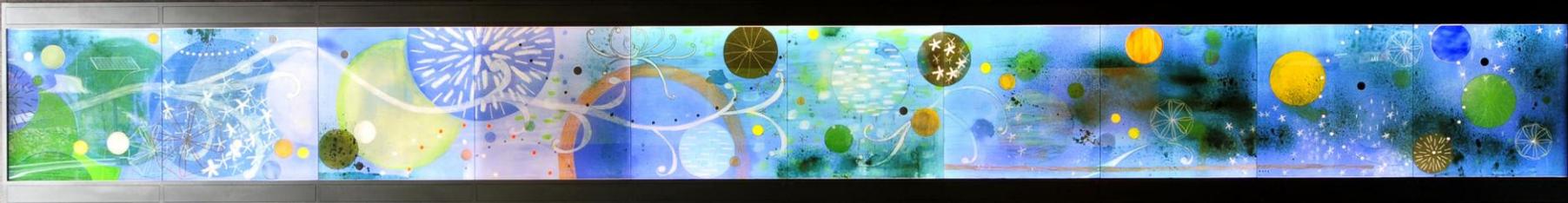
유화 판화 에어 브레싱, 샌드 브레이팅, 각종 유리조형물 플라쥬, 거울 UV treatment 등을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한국 최초로 빌딩에 유리창문을 설치 하듯이 벽에 앵커를 박은 후 메탈로 틀을 만들어 설치하였다. 이때 유리 외곽과 뒷벽 사이에 생긴 10cm 정도의 공간에 작품을 위해 새롭게 고안한 **특수 LED 판 조명**을 넣어, 터널 안에 마치 인공적인 창문으로 바깥이 보이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된 “희망 꽃 피움”은 LIG의 주요색인 오렌지, 초록, 파란색의 사용으로 LIG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창을 만들고자 하였다. 작품은 **자연 속에 인간의 세계와 함께** 어우러져 대비, 양면성, 필연성, 우연성 등이 흩어져 있다. 우연성의 질문과 함께 필연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승화된 것이며, 특히 그림 속에 들어간 LIG로고는 회사, 자연, 개인의 삼위일체적 조화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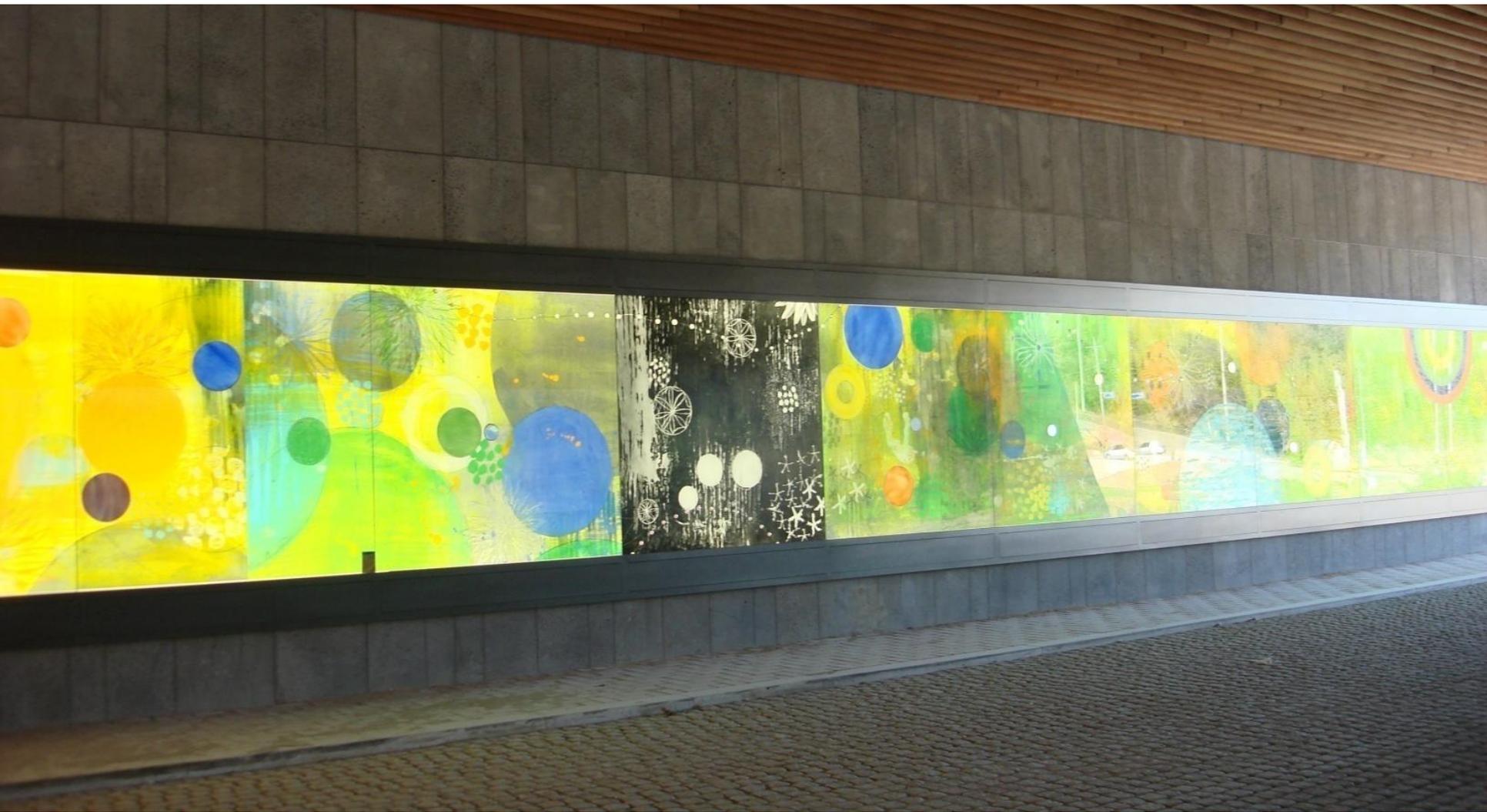


희망 꽃 피움

GALLERY bk



희망 꽃 피움



희망 꽃 피움

GALLERY b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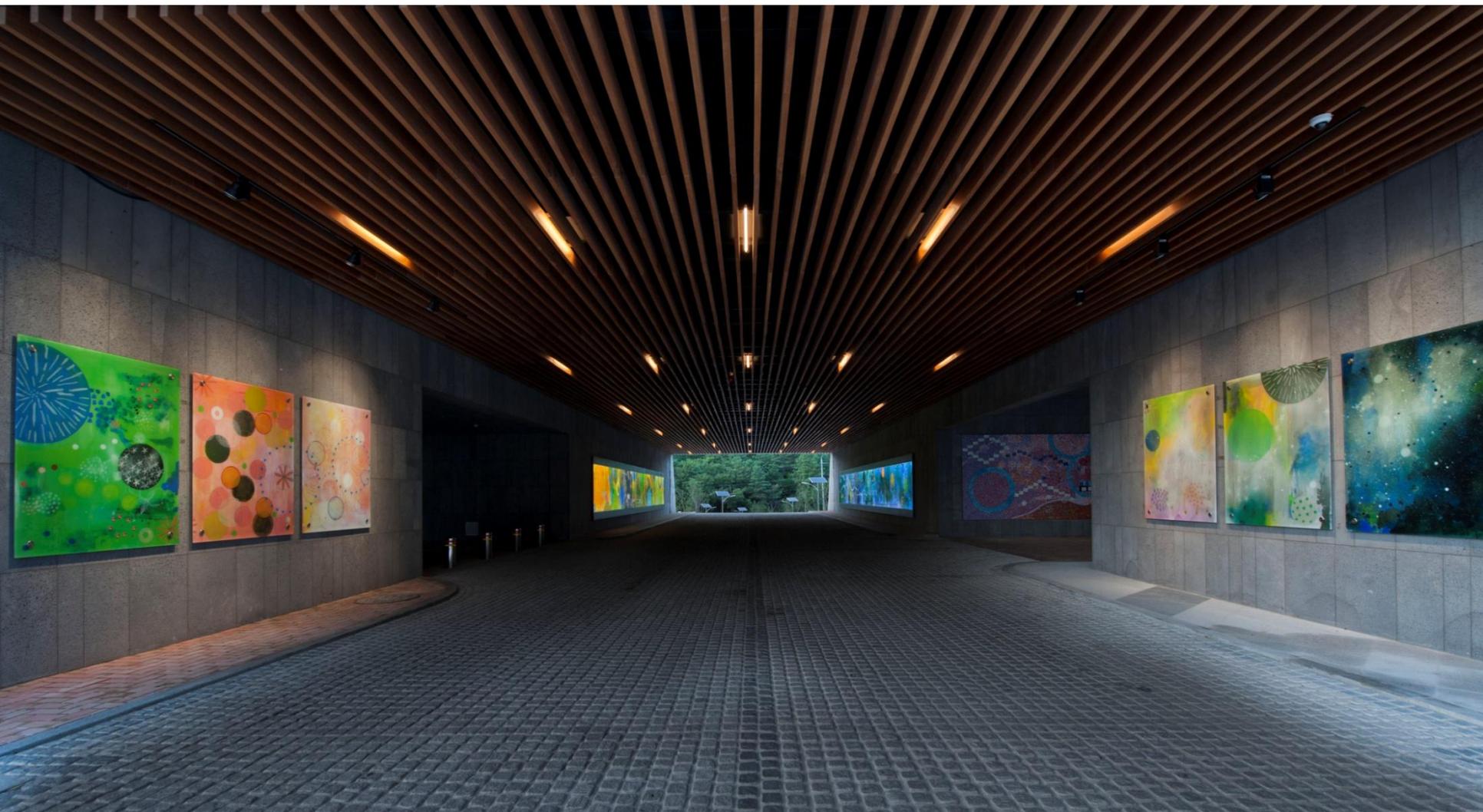


희망 꽃 피움

GALLERY bk



희망 꽃 피움



희망 꽃 피움

GALLERY bk



희망 꽃 피움

GALLERY bk



희망 꽃 피움



부산의 푸른 은빛 바다

About 푸른 은색

부산의 푸른 은빛 바다 <푸른 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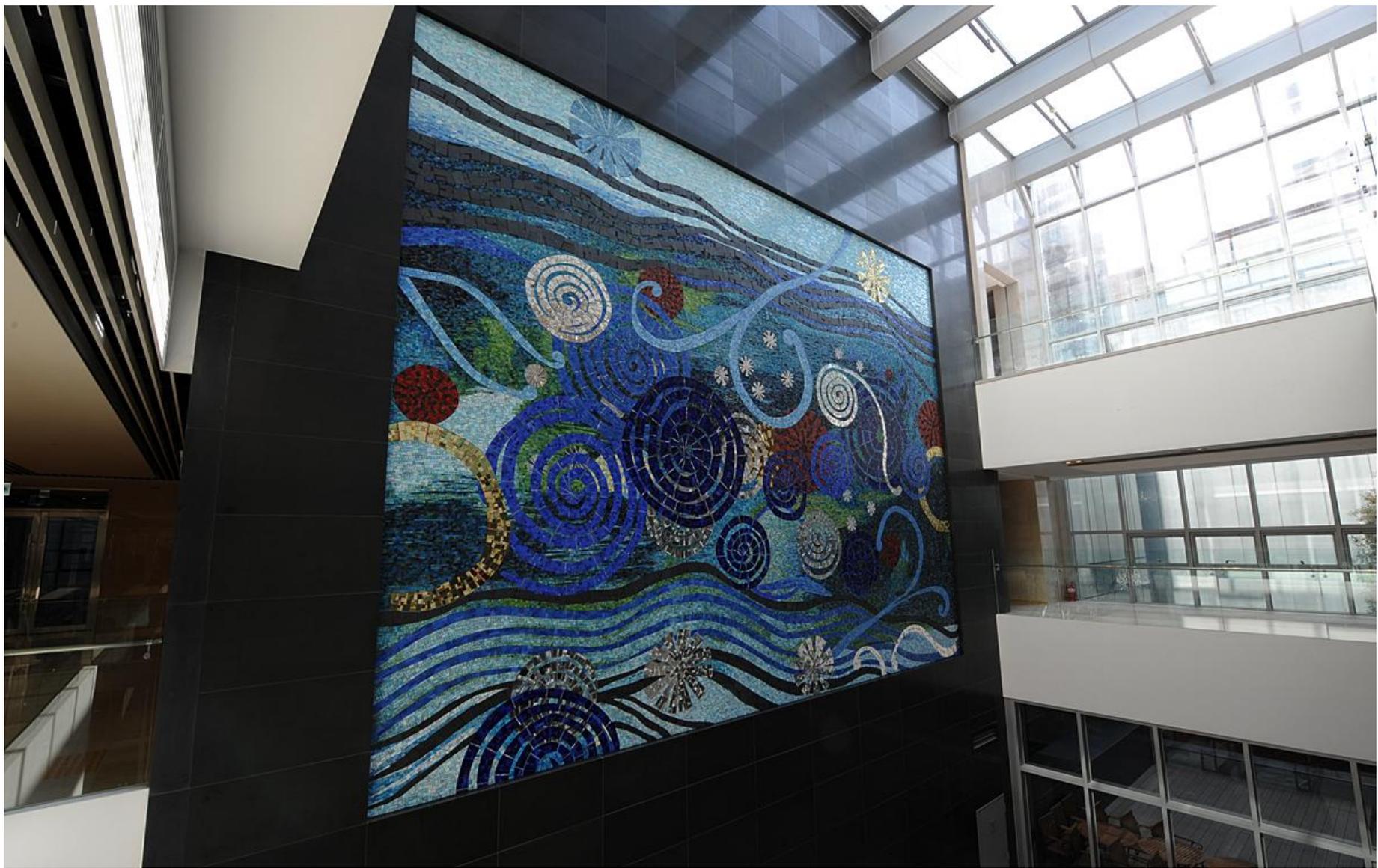
사천에 이어 LIG 부산 사옥에 설치된 그녀의 또 다른 모자이크 작품은 한편의 바다를 건물 안에 옮겨 놓은 듯 보인다. "푸른 은색"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작품은 태양아래 반짝이는 부산의 푸른 은빛 바다를 보며 영감을 얻었다. **높이 7m x 넓이 9m**로 제작된 대형 모자이크 작품으로 **미국의 미오토 모자이크 스튜디오**와 함께 제작한 작품은 기존과 다른 현대적 감각을 엿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스타일의 타일을 사용하였다. 각 타일의 재질과 질감을 고려하여 타일의 성격에 맞게 크기와 색을 정하였으며, 유리 타일의 경우 최대 5x3cm의 크기로, 도기 타일의 경우 최대 0.8x0.8cm 크기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만조각이 넘는 유리 타일과, 광택, 무광택, 투명, 불투명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도기 타일 그리고 슬레이트를 99개의 판넬로 나누어 퍼즐형식으로 조립하였다.

바다가 아름다운 **부산에 위치한 LIG 사옥** 안에 설치된 "푸른 은색"은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물결, 파도, 구름 등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다른 공간을 이룬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진 이 공간은 조화와 대비를 이루는 세계이며, 하늘, 파도, 구름처럼 은빛 찬란한 푸른 바다처럼, 무한과 유한이 어우러지는 현장이다.

The Blue and Silver Seas of Busan <Shimmering Blue>

Following the Mosaic pieces from Sacheon, we can also see Daru JungHyang Kim's different mosaic piece in a different LIG Building in Busan. This mosaic piece radiates the beautiful ocean in which Busan is famous for. And some might say that Daru was successful in transporting a piece of the Busan Ocean waters into the building itself. This work is titled 'Shimmering Blue' and the artist was inspired by the glistening blue ocean waters of Busan that seemed to dance under the warm sunlight. Standing in 7x9 meters, this large scale mosaic was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Miotto Mosaic Art Studio, New York in the United States. To give the mosaic a more contemporary look, different styles and types of tiles were used. The color schemes were carefully selected in accordance to each tiles texture and medium. A single glass tile used in this mosaic measure 5x3cm, while the clay tiles measure 0.8x0.8cm. More than ten thousands glass tiles, differing in style from gloss, matte, transparent, and opaque, and also clay tiles and slates were put together like a puzzle in 99 different panels.

Busan is a harbor city within Korea that is known for its beautiful ocean. Within this striking city also lays another LIG building in which Daru JungHyang Kim's mosaic piece is installed. The work is rightfully titled 'Shimmering Blue', and it vividly illustrates the magical space of where the sky and the sea, waves, currents, and the clouds come together as one and create a paranormal spectacle. For once, the space between sky and the ocean is no where to be found, and this united world of two different spaces stands right in front of us, greeting us with an magical aura in it's timeless world.



푸른 은색

GALLERY bk



푸른 은색

GALLERY bk



Crescent St. station

About window Screen

태양과 기차의 만남

브루클린의 크레센트 스트리트 역에 영구 보존 되어 있는 김정향의 스테인 글라스 작업은 그녀가 크레센트 스트리트 정거장에 도착한 순간 그 곳의 매력에 사로잡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작업으로 손꼽힌다.

이 프로젝트는 MTA(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의 공모를 통해 진행되었다. 2006년 2월 'J'트레인의 5개 정거장에 설치된 작품은 총 7개의 'Wind Screen'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작업마다 3개의 판넬로 구성되어, 총 21개의 판넬로 이루어 졌다.

작품 속의 동그라미는 태양과 기차 바퀴를 동시에 상징하며, 밝고 강렬한 색상은 시각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그 동네 주민들의 다문화적인 성향을 담고 있다. 또한 작품 속 색상들은 하루의 주기를 표현하기도 한다. 노란색은 아침처럼 가볍고 상쾌함을, 빨간색과 주황색은 오후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파란색은 밤의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한다.

지하철 정거장의 거대하게 열려져 있는 공간과 매순간 다른 강도로 물들이며 변화하는 하늘 그 가운데 위치한 작품은 마치 자연과 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크레센트 스트리트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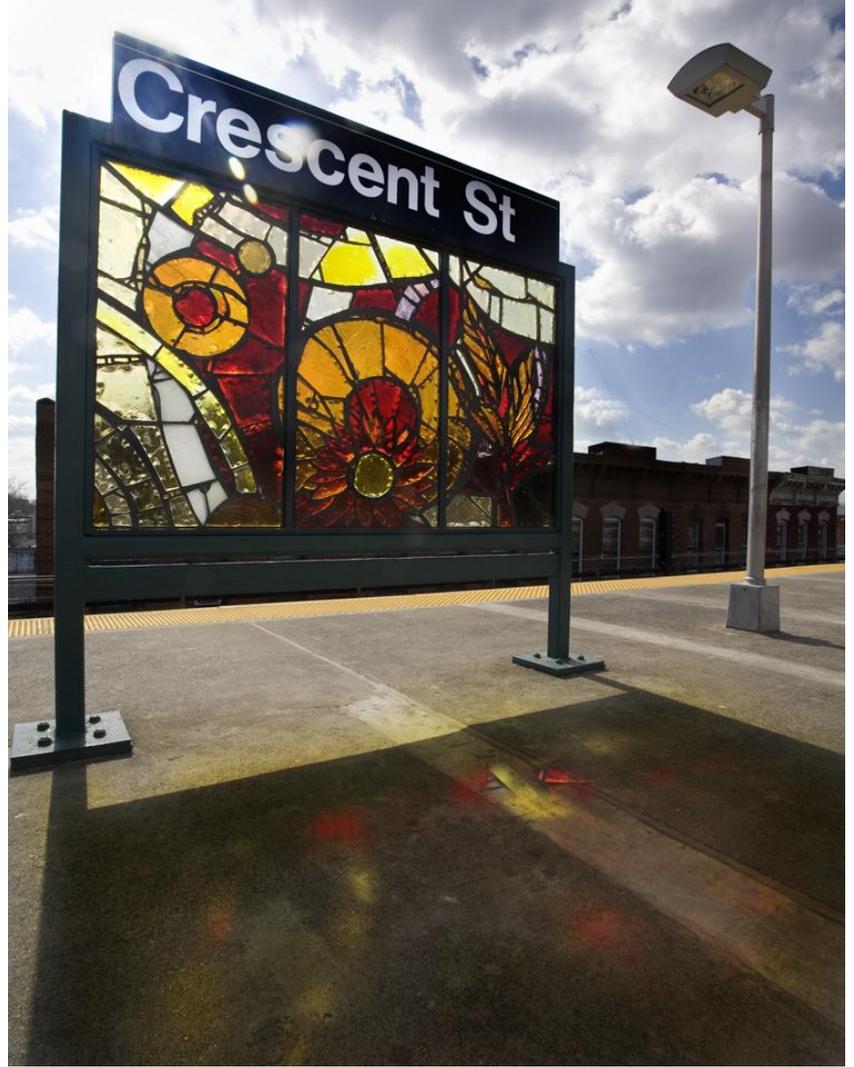
크레센트 스트리트 역



크레센트 스트리트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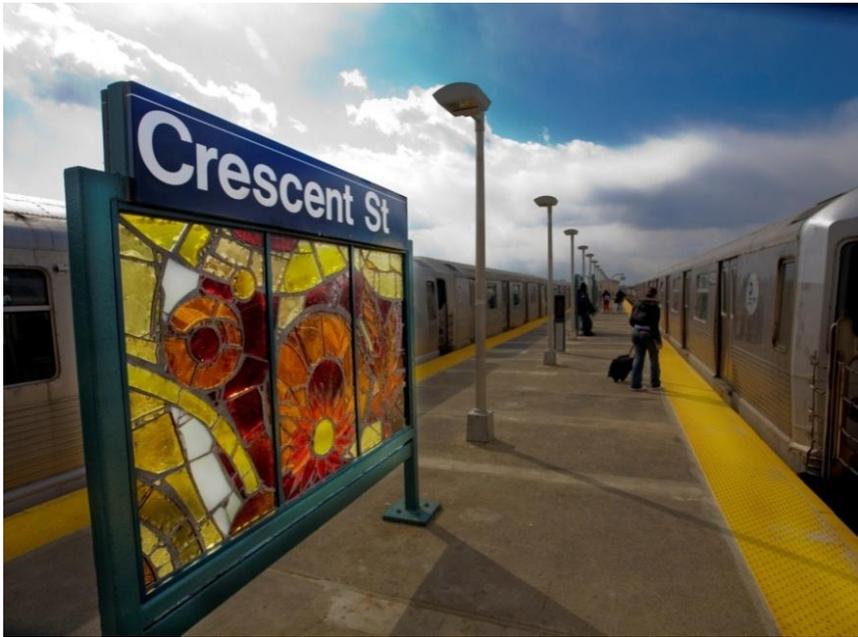
크레센트 스트리트 역



크레센트 스트리트 역



크레센트 스트리트 역



크레센트 스트리트 역

김정향 약력

1980 플랫 인스티튜트, 브루클린, 미국 졸업

197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11 갤러리BK, 서울

2009 갤러리 89, 파리

2008 더 화이트 갤러리, 서울

2006 훈 갤러리, 뉴욕

예맥갤러리, 서울

2005 리센트 페인팅스 앤드 워크 온 페이퍼, 버나쿨러 프레스, 뉴욕

2003 김정향- 신작, 밴 산 갤러리, 윌리엄 페터슨 대학, 워인

2001 필립스 미술관, 다나 룸, 프랭클린 앤드 마셜, 랭커스터, 펜실베니아

2000-2003 익스비전 스페이스, 100 브로드웨이, 뉴욕

2000 프린스턴대학, 프로그램 인 워먼스 스터디, 딕킨스 홀, 프린스턴

소호 미리어드 갤러리, 아틀란타

1999-2000 나르텍스 갤러리, 세인트 피터스 교회, 뉴욕

홀위즈 현대미술관, 버펄로

1999 올린 퍼블릭 갤러리, 올린

1996 아트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뉴욕

1988 스페이스 갤러리, 서울

1985 윈도우 인스톨레이션, 윈도우스 온 화이트, 뉴욕

주요 단체전

2009 페이스 앤 페이스: 한국현대미술 인 뉴욕 -파트1, 갤러리 한국, 뉴욕
인비테이셔널, 초러스 하우스, 워싱턴

4인의 회화작가, 나라갤러리, 포트리, 뉴저지

2008 썸머 가든쇼, 메타포 현대 화랑, 브루클린

인사이트,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 클로스터

2008 캘랜더 저신전, 훈 갤러리, 뉴욕

펀치 보울, 메타포 현대화랑, 브루클린

2007 2007 콜렉터스 쇼, 아카소 미술관, 리틀록

아트 대구 특별전, 대구 컨벤션 센터, 대구

코리안 트랜스퍼, 퍼메넨트 미션오브 더 리펠블린 오브 코리아 투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뉴욕

썸머 그룹쇼, 에미 사이먼 파인 아트, 웨스트 포트

화이트 에즈칼라, 지니 텐젤슨 갤러리, 아트 리그 오브 롱 아일랜드

딕스 힐 스

대지, 바람, 그리고 불 -3인의 여성작가, 2x13갤러리, 뉴욕

회화를 보는 방식 #11, 앨른 슈퍼드 갤러리, 뉴욕

더 스피릿 오브 칼라, 에미 사이먼 파이 아트, 웨스트 포트

2006 트랜스프랜트/ 트랜스컬처, 웨이브 힐, 브롱스

인/폼드 칼라, 브릭 갤러리, 캣스킬

스파리츄얼 -3인작가, 갤러리한국, 뉴욕

2005 아트빌, 2x13갤러리, 뉴욕

그룹쇼, 스페이스 월드, 로 아일랜드 시티

원 데이 익스비전, AHL 재단, 큐 재단, 뉴욕

팔라야바다, 바크 이소 프로젝트 앤드 트리뷰트, 캘리포니아 대학, 얼
바인

아트바2005-2006, 이타카 초코렛 주식회사 갤러리, 이타카

더 로드 소우파, 메타포 현대화랑, 브루클린

프롬 네츄럴 투 테크노 유니버스, 도스카이 갤러리 큐레이토리얼 프

로그래, 롱 아일랜드 시티

김정향 약력

- 2004 점, 원, 정갤러리, 서울
- 2003 크로스 로드스, 한국문화원 갤러리, 뉴욕
100년 100꿈, 스페이스 월드 갤러리, 롱 아일랜드 시티
이프 더 슈즈 피트 앤드 버사 버전스, 피셜아트 빌딩, 바드 칼리지
- 2002 이프 더 슈즈 피트 앤드 버사 버전스, 레만 칼리지 아트 갤러리, 브롱스
- 2001 컨디션스: 아시안 현대 여성작가, 하몬스 미술관
오버 앤드 오버 패턴스 앤드 레이어스, 마리스크 칼리지 갤러리, 포킵시
- 2000 인튜이티브 앱스트렉션, 벤 산 갤러리스, 윌리엄 페터슨 대학, 웨인
굿 비즈니스 이즈 더 베스트 아트, 더 브롱스 미술관, 브롱스
그룹쇼, 스폰서드 바이 콜롬비아 컨트리 아트 카운슬, 캐리 해더스 갤러리, 허드슨
스몰 프레저스 인 아이들니스, 갤러리456, 뉴욕
코프루언스 오브 컬처스, 플랫 인스티튜트, 브루클린
- 1999 비주얼 에이지 이벤트, 알렉산더 앤드 보닌, 뉴욕
코프루언스 오브 컬처스, 뉴욕 문화원 갤러리, 뉴욕
보타니커스, 캔달 아트 앤드 디자인, 허드슨
스캐터스 멜로디스, 프레이디스 갤러리, 뉴욕
- 1998 의미와 은유, 스페이스 월드, 뉴욕
포스트카드 프롬 더 에지, 비주얼 에이지 이벤트, 뉴욕
- 1997 풋스텝, 플랫 인스티튜트, 브루클린
웁설베이션, 워크 온 페이퍼, 캔달 아트 디자인, 허드슨
닷츠, 금호미술관, 서울
- 1996 레피티션 컴플션, 에잇스 플로어 갤러리, 뉴욕
- 1995 소품전, 아트 프로젝트 인터네셔널, 뉴욕
그룹쇼, 주노 갤러리, 뉴욕

- 2인전, 아트 프로젝트 인터네셔널, 뉴욕
- 1994 썸머 쇼케이스, 주노갤러리, 뉴욕
아시안 아메리칸 아트센터, 뉴욕
- 1993 셀렉션스 프롬 더 슬라이드 레지스트리, 더 레만 갤러리, 브롱스
- 1992 1.5쇼, 트라이베카 갤러리, 뉴욕
모포로직, 아트 인 제너럴, 뉴욕
- 1991 뉴욕의 24명 한국작가, 헤나 캔트 갤러리, 뉴욕
- 1990 어 데케이드 오브 더 마켓플레이스, 더 브롱스 미술관, 브롱스
앱스트랙 버전스, 갤러리 한국, 뉴욕
- 1989 아티스트 인 더 마켓플레이스, 더 브롱스 미술관, 브롱스
스페이스 갤러리, 서울
- 1988 에버슨 바이에니얼, 에버슨 미술관, 시라큐스
- 1986 시티 워드 아웃 월스, 뉴워크
- 1985 퍼블릭 이미지 갤러리, 뉴욕
영 페이스 고잉 플레이스, 원치미술관, 그렌코브
포커스 포, 퍼블릭 이미지 갤러리, 뉴욕
- 1980 6인의 작가, 한국갤러리, 뉴욕
- 1976 세이트마틴스 칼리지 갤러리, 영국 외 다수

수상

- 2006 뉴욕지하철 미술, 자메이카 라인 부분 수상
- 2005 한국무노하사업 특별작가 수여
- 2001 플랫대학, 플랫을 빛낸 올해의 동창생상
- 2000-2008 엘리자베스 예술 대전, 스튜디오, 프로그램 예술인
- 1998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스튜디오 인어 스킨
- 1992 런셀러 지방의회 지원금 수여 외 다수

김정향 약력

작품 소장

사천 LIG 연구원, 사천

MTA, 메트로폴리탄 트랜짓 오소리티, 뉴욕

훈갤러리, 뉴욕

한국일보 뉴욕지사, 뉴욕

기븐즈 변호사 협회, 뉴저지

롯데월드, 서울

시보드 부동산 개발 회사, 커네티컷

빙그레 주식회사, 서울

이지로 주식회사, 일산

아틀란타 메디칼 센터, 아틀란타

메르세데스 벤츠, 뉴 포트비치, 캘리포니아

랜드 아메리카 미국본사, 플로리다

우드필드 컨추리 클럽, 플로리다

모히간-선 헬스클럽, 커네티컷

그린 라이트 캐피탈, 뉴욕

버나쿨러 프레스 출판사, 뉴욕

하얏트 주시고히사, 슈트너 텍사스

김정향 약력

1980 Pratt Institute, Brooklyn, NY. MFA
1977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BFA

Solo Exhibitions

2011 spiritoso, Gallery BK, Seoul, Korea
Scented Forest, Galerie Caplain-Matignon
2009 Gallery 89, Paris, France
2008 One Person Show, The White Gallery, Seoul, Korea
2006 One Person Show, Hun Gallery, New York, NY
One Person Show, Yemac Gallery, Seoul, Korea
2005 Recent Paintings and Works on Paper, Vernacular Press, New York, NY
2003 Jung Hyang Kim – New Works, Ben Shan Galleries at William Paterson University, Wayne, NJ
2001 Phillips Museum of Art, Dana room at Franklin & Marshall, Lancaster, Pennsylvania
2000-2003 Exhibition Space at 100 Broadway, New York, NY
2000 Princeton University, Programs in Women's Study, Dickinson Hall, Princeton, NJ
Soho Myriad Gallery, Atlanta, Georgia
1999-2000 Narthex Gallery at Saint Peters Church, New York, NY
1999-2000 Hallwalls Contemporary Art Center, Buffalo, NY
1999 Olean Public Gallery, Olean, NY
1996 Art Projects International, New York, NY
1988 Space Gallery, Seoul, Korea
1985 Window Installation, Windows on White, New York, 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9 Faces & Facts: Korean Contemporary Art in New York- Part 1 "abstraction Now", Gallery Korea, NY
Invitational, Chorus House, Washington DC
Four Painters, Nahrah Gallery, Fort Lee, NJ
Inaugurating Dream – 2Person Show, Amy Simon Fine Art, Westprt, CT
2008 Summer Garden Show, Metaphor Contemporary Art, Brooklyn, NY
Insight, Closer Art Studio, Closter, NJ
2008 Calendar Exhibition, Hun Gallery, New York, NY
Punch Bowl, Metaphor Contemporary Art Brooklyn, NY

2007 2007 Collector's Show, Arkansas Art Center, Little Rock, Arkansas
Art Daegu Special Exhibition, Daegu Convention Center (EXCO), Daegu, Korea
Korea Transfe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NY
Summer Group Show, Amy Simon Fine Art, West Port, CT
White as Color, Jeanie Tengelsen Gallery, Art League of Long Island, Dix Hills, NY
Earth, Wind and Fire – 3 Women Artists, 2 X 13 Gallery, New York, NY
Art of Seeing #11, Allen Sheppard Gallery, New York, NY
The Spirit of Color, Amy Simon Fine Art, West Port, CT
2006 Transplant/Transculture, Wave Hill, Bronx, NY
In/Formed Color, BRIK Gallery, Catskill, NY
Spi-ritual: Three Artists, Gallery Korea, New York, NY
2005 The Artville, 2x13 Gallery, New York, NY
Group Show' Space World, Long Island City, NY
One-Day Exhibition, AHL Foundation, Cue Foundation, New York, NY
FALLAYAVADA, Bahc Yiso Project and Tribut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CA
Art Bar 2005-2006, Ithaca Chocolates Inc. Gallery, Ithaca, NY
The Road So Far, Metaphor Contemporary Art, Brooklyn, NY
From Natural to Techno Universes, Dorsky gallery Curatorial Prgram, Long Island City, NY
2004 Dot, Circle, Jung Gallery, Seoul, Korea
2003 Cross Roads, Korean Cultural Service Gallery, New York, NY
100 Years 100 Dreams, Space World Gallery, Long Island City, NY
If the Shoe Fits and Vernal Visions, Fisher Art Building, Bard College, NY
2002 If the Shoe Fits and Vernal Visions, Lehman College Art Gallery, Bronx, NY
2001 Confessions: Contemporary Art by Asian Women, Hammond Museum, NY
Over and Over-Patterns and Layers, Marist College Art Gallery, Poughkeepsie, NY

김정향 약력

2000 Intuitive Abstraction, Ben Shan Galleries at William Paterson University, Wayne, NJ
 Good Business is the Best Art, The Bronx Museum of the Arts, Bronx, NY
 Group Show, Sponsored by Columbia County Arts Council, Carrie Haddad Gallery, Hudson, NY
 Small Pleasures in Idleness, Gallery 456, New York, NY
 Confluence of Cultures, Pratt Institute, Brooklyn, NY
1999 Visual Aids event, Alexander and Bonin, New York, NY
 Confluence of Cultures, Gallery Korea, New York, NY
 Botanicus, Kendall College Art and Design, Hudson, NY
 Scattered Melodies, Pleiades Gallery, New York, NY
1998 Meaning and Metaphor, Space World, New York, NY
 Postcards from the Edge, Visual Aids event, New York, NY
1997 Footstep, Pratt Institute, Brooklyn, NY
 Observation, Works on Paper, Kendall College Art and Design, Hudson, NY
 Dots,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1996 Repetition Compulsion, Eighth Floor Gallery, New York, NY
1995 Small Works, Art Projects International, New York, NY
 Group Show, Juno Gallery, New York, NY
 Two Person Show, Art Projets International, New York, NY
1994 Summer Showcase, Juno Gallery, New York, NY
 Group Show, Asian American Arts Center, New York, NY
1993 Selections from the Slide Registry, The Lehman College Art Gallery, Bronx, NY
1992 1.5 Show, Tribeca Gallery, NY
 Morphologic, Art in General, New York, NY
1991 24 Korean Artists in New York, Haenah-Kent Gallery, New York, NY
 A Decade of the Marketplace, The Bronx Museum of the Arts, Bronx, NY
1990 Abstract Visions, Gallery Korea, New York, NY
1989 Artists in the marketplace, The Bronx Museum of the Arts, Bronx, NY
 Space Gallery, Seoul, Korea
1988 Everson Biennial, Everson Museum, Syracuse, NY
1986 City Without Walls, Newark, NJ

1985 Public Image Gallery, New York, NY
 Young Faces Going Places, Wunch Art Center, Glen Cove, NY
 Focus Four, Public Image Gallery, New York, NY
1980 Six Artists, Hankook Gallery, New York, NY
1976 Saint Martins College Gallery, United Kingdom

Grants & Honors

2006 MTA Arts for Transit- Jamaica line- Winner (Crescent Street)
2005 MTA Arts for Transit- Canarsie line finalist
 Korean Cultural Service – Special Artist Grant (June, 2005), New York
2001 Pratt Institute 'Alumni Achievement Award'
2000 Elizabeth Foundation for the Arts Studio Program
1992 Grant from Renssealaer County Council for the Arts
1985 Grant from Artist's Space
1979 Fellowship from Pratt Institute

Collections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New York, NY
Hun Gallery, New York, NY
The Korea Times, Long Island City, NY
Gibbons Law Firm, New Jersey
Lotte World, Seoul, Korea
Sea Board Properties, Stamford, CT
Binggre Corporation, Seoul, Korea
Easy Law Corporation, Ilsan, Korea
Atlanta Mediccal Center, Atlanta, GA
Fletcher Jones Mercedes Benz, Newport Beach, CA
Land America Headquarters, Florida
Woodfield Cascades Country Club, Boca Raton, Florida
Mohegan-Sun Health Club, Uncasville, CT
Greenlight Capital, New York, NY
Vernacular Press, New York, NY
Hyatt Corporation, Houston, TX